

## 초급 한국어 교재의 한자어에 대하여

- 중국에서 쓰이는 한국어 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문려화/유춘희\*

### 1. 머리말

중한 수교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오면서 중국 내에서 한국어 교재 편찬도 크게 활기를 띠었고 한국에서 편찬한 한국어 교과서들도 중국 도서 시장에 많이 나와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한국어 교육 학계도 한국어 교육과 교재 편찬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고 관련 연구 성과들도 괄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미 출판된 교재를 대상으로 분야별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많지 못하다. 특히 어휘에 있어서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이미 내재화된 지식, 즉 한자와 한자어 관계를 활용하여 한자어 어휘력을 증대시킬 데 대한 연구는 있지만 교재에서의 한자어 분석 연구는 별로 없다.

한국어는 어종상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유어는 먼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이 한국어 단어 형성법에 따라 만들어 사용하여 오는 순수한 한국어 단어이다. 한자어는 원래 중국어에서 차용되어 쓰이던 단어인데 지금 쓰이는 것 중에는 일본어에서 온 것과 한국에서 만들어 쓰는 한자어도 있다. 외래어는 원래 다른 언어의 단어이던 것이 한국어의 음운 체계와 의미 체계에 동화되어 쓰이는 단어이다. 혼종어는 어종이 다른 언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이다. 즉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외래어, 한자어와 외래어 혹은 어원이 다른 외래어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단어를 말한다. 고유어는 한국어 어휘 중에서 20% 이내밖에 되지 않지만 한자어는 60-70%를 차지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한국어 교육과 교재 편찬에서 한자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근본적인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자와 한자어를 활용하는 것이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바이다. 많은 연구에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특히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를 공부할 때 발음도 유사하고 의미도 같은 한자어가 있음으로 하여 우세를 차지한다고 보고 있다. 교재는 학습의 기본 자료이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한자어 어휘를 과학적으로 주는 것이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본 연구는 중국인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한자어 어휘를 대상으로 어휘 양, 어휘 구조, 난이도에 따른 한자어 선정 등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교과서의 한자어 교육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 한국어 교육과 나은 교재의 편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초급 단계 한국어 교재 10세트 총 20권(한국에서 편찬하여 중국에 번역되어 쓰이는 초급 교재 6권, 중국에서 편찬하여 쓰이는 초급 교재 14권)에 나오는 모든 한자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계량학적인 방법으로 교재에서 출현된 단어들을 통계하고 한자어

\*문려화/유춘희 공동발표(부경공업대학교)

가 차지하는 비율, 한자어의 구성, 한자어의 품사 등을 분석하고 국립국어 연구원의 “2003년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5965개와도 비교하면서 논의한다.

## 2. 초급 한국어 교재에 출현된 어휘와 한자어

분석에 이용된 교재 및 단어와 한자어를 통계한 결과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 초급 한국어 교재의 단어 상황>

	교재	저자/출판사	전체 단어 (개)	한자어 (개)	한자어비율 %
1	초급한국어 상/하	강은국 외/상해교통대학출판사	1357/2172	677/1389	49.9/64
2	대학한국어 1/2(수정판)	우림길 외/북경대학출판사	860/1137	468/650	54.4/57.2
3	한국어 1/2(수정판)	이선한 외/민족출판사	990/1963	407/1086	41.1/55.3
4	표준한국어교정 1/2	장광군 외/요녕민족출판사	850/1322	382/766	44.9/57.9
5	초급한국어 상/하	전룡화 외/연변대학출판사	971/1216	470/661	48.4/54.3
6	초급한국어 상/하(수정판)	최희수 외/연변대학출판사	1230/1258	473/614	38.5/48.8
7	신편초급한국어 상/하	최희수 외/요녕민족출판사	1416/1447	625/757	44.1/52.3
8	한국어 1/2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문진미디어	491/590	206/220	42/37.3
9	한국어 1/2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세계도서출판사	693/709	287/406	41.4/57.3
10	한국어 초급 1/2	김중섭 외/경희대학교출판국	623/675	259/326	41.6/48.3

분석된 교재에서 나타난 한자어는 총11,129개이고 그중 개별 한자어는 5018개(고유명사, 접사 등 제외)였다. <표1>에서 보면 여러 교재들의 단어 양이나 한자어의 양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인다. 단어는 한 책에 500개 미만에서 많게는 2천 여 개에 이르러 교재들의 학습 대상과 편찬 목적에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에서 편찬된 교재들은 거의가 700개를 넘지 않고 있어서 대학 한국어 전공 교재로 쓰기에는 단어 양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초급 교재에서 나타난 한자어의 빈도 상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2 교재의 한자어 빈도>

빈도수	빈도1	빈도2	빈도3	빈도4	빈도5	빈도6	빈도7	빈도8	빈도9	빈도10
한자어 5018	3012	779	415	235	184	96	87	84	56	70
빈도 2이상 한자어 합계 2006개										

본 연구에서는 빈도 1의 한자어는 교재마다 내용이 좀 다르고 치우치는 면이 다르기에 우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제외하고 빈도 2이상의 한자어 2006개

만 분석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

### 3. 초급 한국어 교재에 출현된 한자어 분석

#### 3.1 교재 속 한자어의 구성

한자어는 순수 한자어와 혼종 한자어로 나뉜다. 혼종어는 한자어+ 고유어, 고유어+ 한자어, 한자어+ 외래어, 외래어+ 한자어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된 한자어와 혼종어의 통계는 다음과 같다.

<표3 구성에 따른 한자어 통계>

한자어	순수 한자어	혼종어				합계
		한+고	고+한	한+외	외+한	
수량	1451	504	41	7	3	2006
비율	72.33	25.12	2.04	0.34	0.14	100%

순수 한자어는 ‘ 학교, 교실, 인사, 오전’ 등의 명사가 대부분이고, ‘ 일, 사, 백’ 등의 수사, ‘ 금방, 짐차, 과연’ 등의 부사와 ‘ 대, 시, 개월’ 등의 의존명사, ‘ 별’ 등의 관형사, ‘ 제-’ 등의 접사가 있었다. ‘ 한자어+ 고유어’로 된 혼종어는 ‘ 한자어 명사+ 하다/되다’의 구조가 대부분이었다. 한국어의 특성상 동사와 형용사는 한자어 명사에 접미사 ‘ -하다’나 ‘ -되다’가 결합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 외에 ‘ 특히, 별로, 혹은’ 등의 고유어 접사나 조사와 결합된 부사, ‘ 선생님, 외할머니, 별일’ 등의 명사가 있었다. ‘ 고유어+ 한자어’는 주로 명사에서 나타났는데 ‘ 갈비탕, 보라색, 쓰레기통, 이번’ 등이고, ‘ 그녀’ 등의 대명사도 있었다. ‘ 한자어+ 외래어’ 구조와 ‘ 외래어+ 한자어’ 구조는 ‘ 전화벨, PC방’ 등으로 그 수가 아주 제한되어 있었다. 초급단계에는 기초 생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므로 주로 새 사물에 많이 쓰이는 외래어는 그 수가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3.2 교재 속 한자어의 품사 구성

초급 교재에서 한자어는 품사별로 어떤 양상과 비율로 출현되었는지 알아보았다.

<표4 품사에 따른 한자어 통계>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수사	의존 명사	접사
빈도 2이상 단어 2006개	1470	294	113	58	14	18	36	3
비율%	73.3	14.7	5.6	2.9	0.7	0.9	1.8	0.15

한자어의 품사는 단연 명사가 가장 많아서 73.3%를 차지하였다. 그 뒤로 동사와 형용사가 따르고 있는데 초급 교재라는 점에서 보면 당연히 형용사가 적게 나올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단어표에는 명사로 나와 있지만 ‘ -하다’ 혹은 ‘ -되다’가 붙어 동사가 될 수 있는 한자어 명사가 166개나 되는 것을 감안하면 활용 가능한 동사는 460개나 된다. 이는 동사의 비율을 23%로 끌어올려 형용사의 4배 이상이 된다.

초급 교재에는 빈도 2이상의 한자어 부사가 58개가 출현되었는데 대부분이 동사나 형용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꾸미는 성분부사였다. 그리고 ‘ 정말, 만일, 과연’ 등 소수의 문장부사가 출현되었다.

한자어 수사는 ‘ 일’ 부터 ‘ 백’ 까지 그리고 ‘ 천’ , ‘ 만’ , ‘ 억’ 등이 교재들에 나왔지만 단어표에 수록된 것은 일부였다. 그러므로 숫자상 18개밖에 통계되지 않았다.

접사에 의한 파생어는 적잖이 보였지만 접사를 단독으로 설명하고 단어표에 넣은 것은 ‘ 제-(第), -용(用), -류(類)’ 뿐이었다. 초급 교재인 만큼 단어를 통째로 주는 것이 형태를 분석하여 주기보다는 간단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3.3 학습용 어휘 목록 중 한자어와 교재의 한자어

우리는 교재의 한자어와 국립국어연구원의 “ 2003년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에 나타난 한자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 국립국어원” (2003)의 조사 자료에는 총 5965개의 고빈도 어휘가 선정되었는데 그중에서 한자어는 3303개였다. 우리가 분석한 초급 한국어 교재에서 빈도2 이상의 한자어 총 2006개 중 “ 국립국어원” (2003)의 한자어 3303개 속에 포함된 한자어는 1402개였다. 즉 우리 교재에 빈도 2이상 출현된 한자어 2006개 중 “ 국립국어원” 의 어휘 목록에 선정된 한자어는 70%정도이다. 나머지 30%는 “ 국립국어원” 의 어휘 목록에 들어가지 못한 단어라는 얘기다. <표2>에서 보여 준 빈도 1의 단어 3012개 중에도 일부가 “ 국립국어원” 의 어휘 목록에 나온 단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이 여기에 선정되지 못한 단어라고 할 때 우리 교재의 어휘 선정이 잘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교재 편찬자들이 앞으로 더 중시를 돌려야 할 바라고 생각된다.

분석 대상이 된 10종의 교재에서 모두 출현한 한자어는 총 70개인데 국립국어원의 어휘 목록과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국립국어원의 어휘 목록과 교재에서 모두 출현한 한자어>10종 교재에서 모두 출현한 한자어		국립국어원 어휘 목록			10종 교재에서 모두 출현한 한자어		국립국어원 어휘 목록		
		빈도순 위	한자어 빈도순 위	등급	어휘	한자	빈도순 위	한자어 빈도순 위	등급
어휘	한자				어휘	한자			
가족	家族	409	126	B	감기	感氣	3343	1574	A
고향	故鄉	593	217	B	공기	空氣	1433	625	B
교실	教室	1339	576	A	권	卷	1672	733	A
기숙사	寄宿舍	4776	2115	A	기차	汽車	2919	1371	A
내일	來日	1270	1651	A	농구	籠球	9968	3070	B
도서관	圖書館	1732	761	A	동생	同生	602	222	A
맥주	麥酒	2861	1346	A	방	房	318	97	B
방학	放學	1581	691	A	백화점	百貨店	1974	880	A
번	番	138	32	C	병원	病院	628	230	B
보통	普通	1392	601	A	비행기	飛行機	1171	491	A

사무실	事務室	1781	788	A	산	山	465	152	B
생활	生活	174	41	A	선물	膳物	1741	764	A
소식	消息	1079	444	B	수업	授業	919	371	A
시	時	193	46	B	시간	時間	99	18	B
시험	試驗	639	236	B	식당	食堂	1393	602	A
신문	新聞	513	174	A	여행	旅行	984	405	A
영화	映畫	341	104	B	오전	午前	1193	501	A
오후	午後	606	225	B	우산	雨傘	1632	718	A
우체국	郵遞局	5791	2467	A	원	圓	-	-	-
은행	銀行	599	220	C	의사	醫師	1295	553	A
의자	椅子	2292	1048	A	일요일	日曜日	1784	790	A
자전거	自轉車	1224	520	A	잡지	雜誌	1862	822	A
전	前	115	24	B	점심	點心	2256	1029	B
주말여행	週末旅行	-	-	-	지갑	紙匣	3888	1798	A
지금	只今	195	42	B	지하철	地下鐵	1755	772	A
책	冊	215	57	A	축구	蹴球	1317	566	A
취미	趣味	2671	1254	A	편지	片紙	952	388	A
학교	學校	125	27	A	학기	學期	2515	1164	B
한자	漢字	2643	1234	A	회사	會社	389	116	A
노력하다	努力-	944	385	B	도착하다	到着-	1305	559	A
소개하다	紹介-	1401	609	A	안녕하다	安寧-	1978	883	A
약속하다	約束-	2660	1245	A	열심히	熱心-	660	249	B
유명하다	有名-	1605	708	A	죄송하다	罪悚-	2724	1281	A
출발하다	出發-	1982	887	A	친절하다	親切-	3894	1802	A
특히	特-	192	45	C	필요하다	必要-	251	69	B

10종 교재에서 모두 나타난 70개 한자어 중 국립국어원의 어휘 목록에 포함된 한자어는 총 68개이다. 모든 교재들에서 출현한 단어는 역시 고빈도 어휘이며 학습자들의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재들마다 다뤄진 한자어가 적게는 200여 개에서 많게는 1300여 개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재에서 고빈도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 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교재 편찬에서 고빈도 어휘를 중시하지 못했거나 중시가 부족하지 않았나 고민해 볼 바라고 생각된다.

#### 4. 습득 난이도에 따른 한자어 분석

교재에서 학습 단계별 한자어를 어떻게 줄 것인지를 알아보려면 한자어의 습득 난이도 분석이 필요하다.

##### 4.1 한자어 계열에 따른 난이도

한국어의 한자어 계열은 중국계, 일본계, 한국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그중에서 중국계 한자어가 가장 많은데 대부분 중국의 경서(經書), 사서(史書), 문집(文集) 등을 통하여 전래되었다. 중국계 한자어 중 현대 중국어에서 계속 쓰이는 단어 ‘가정(家庭), 부모(父母), 차표(車票)’ 등은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다.

일본어계 한자어는 갑오경장(1894) 이후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여 한국어 어휘 체계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일본어계 한자어는 일본어식 한자어로서 현대 중국어에 역류하여 자리 잡은 것과 한국어에만 뿌리 내린 한자어가 있다. 중국에서도 똑같이 쓰고 있는 ‘철학(哲學), 사상(思想), 신분(身分)’ 등은 학습자들에게 아주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중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한자어 ‘안내(案内), 할인(割印), 月曜日(월요일)’ 등은 아주 생경하여 습득에서의 난제가 된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한자어는 한자의 조어력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한자어들이다. 오래 전에 만들어진 한자어들 중에는 한국 한자도 쓰이고 있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진다. ‘고생(苦生), 사돈(查頓), 시댁(媳宅), 시청자(視聽者), 양말(洋襪)’ 등은 한국 한자가 쓰였거나 한국에서 만든 한자어로서 단순히 한자만 보고는 의미를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습득의 난제로 된다. 그러나 사회적 현상과 관련하여 근간에 만들어진 한자어들은 그 이해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예를 들면 ‘공주병(公主病), 장발족(長髮族), 광통신(光通信)’ 등이다.

## 4.2 형태와 의미에 따른 난이도

한자어의 유입과 생성을 파악하여 한자어를 가르치는 것은 그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한자어의 계열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한자어의 유형에 따라 형태와 의미를 분석하여 난이도를 가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한자어의 유형은 크게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이형동의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4.2.1 동형동의 한자어

동형동의 한자어는 중국어의 어휘와 한국어 한자어가 외적인 면에서 형태소와 형태소의 배열 순서가 동일하고 어휘의 외형이 같으며 내적인 면으로 의미, 품사성 및 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한 조의 어휘를 말한다. 여기에는 완전 동형과 ‘명사+하다/되다’ 형도 포함된다. 한중 언어 체계에서 동형동의어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나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교재에서도 순 한자어 중 동형동의 한자어는 71.19%나 차지하였다. 교재에서 출현된 고빈도 동형동의 한자어들을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고향(故鄉), 교실(教室), 국산(國產), 극장(劇場), 기억(記憶), 노동(勞動), 녹색(綠色), 도서관(圖書館), 면적(面積), 문명(文明), 문제(問題), 백화점(百貨店), 병(病), 사실(事實), 시간(時間), 식당(食堂), 여행(旅行), 우산(雨傘), 의사(醫師), 의자(椅子), 전화(電話), 차(車), 차이(差異), 철도(鐵道), 치료(治療), 품질(品質), 풍속(風俗), 학교(學校), 한자(漢字), 화가(畫家), 회의(會議)……

이 부류의 한자어는 두말할 것 없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쉽게 습득할 수 있는 어휘들이다. 그러므로 초급 교재에서는 될수록 상용 동형동의 한자어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2 이형동의 한자어

이형동의 한자어는 말 그대로 형태가 일치하지 않으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말한다. 이형동의어는 동일어소가 포함되지 않은 동의완전이형어와 동일어소가 포함된 동의부분이형어로 볼 수 있는데 동의부분이형어에는 어소도치의 경우도 포함된다.

본 논문의 분석자료에서 순 한자어 중 이형동의 한자어는 20.19%를 차지하였다. 교재에서 출현된 고빈도 이형동의 한자어들을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의완전이형어: 공책(空冊)-本子, 물건(物件)-东西, 시계(時計)-钟表, 장갑(掌匣)-手套, 지갑(紙匣)-钱包, 편지(片紙)-信, ……

동의부분이형어: 감기(感氣)-感冒, 작년(昨年)-去年, 소개(紹介)-介绍, 운명(運命)-命运, 고통(苦痛)-痛苦, ……

이 부류의 한자어 중 가장 쉽게 다가오는 것은 ‘소개(紹介), 운명(運命), 고통(苦痛)’ 등의 어소도치 한자어이다. 이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동형동의어보다는 좀 어렵게 다가오겠지만 어순만 바꾸면 중국어와 완전히 같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부류의 상용 한자어도 초급 교과서에 출현시킬 수 있다.

완전이형동의어는 형태에서 완전히 같은 부분을 찾지 못하지만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한자어들은 일부가 중국 고대에 전래된 것이라 현대 중국어에서는 거의 안 쓰는 것이고, 일본에서 전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형태가 현대 중국어와 완전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초급 수준에서는 한자어라고 인식하지 않고 배우는 것이 더 나을 듯싶다.

#### 4.2.3 동형이의 한자어

동형이의 한자어는 중국어 어휘와 형태는 같으나 의미가 다른 어휘들이다. 한국의 한자어는 전래 초기에는 중국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한자어 사용 범위가 고유명사에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어까지 확대되면서 한국어의 체계 속으로 뿌리를 내림에 따라 본래의 의미가 한국적이 되거나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는 각기 자국의 언어 환경에서 발전하여 점차 이질화되기 시작했고 동형이의어가 되었다. 이 유형에 속하는 어휘는 동형이지만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을 동형완전이의어라 하고 의미가 공통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부분도 가지는 것을 동형부분이의어라고 한다.

본 논문의 교재 분석에서 순 한자어 중 동형이의 한자어는 8.54%를 차지하였다. 교재에서 출현된 고빈도 동형이의 한자어들을 일부 보이면 다음과 같다.

동형완전이의어: 강의(講義), 공부(工夫), 기차(汽車), 세수(洗手), 신문(新聞), 약속(約束), 점심(點心), 축구(蹴球), ……

동형부분이의어:간단(簡單),감각(感覺),기본(基本),긴장(緊張),도로(道路),모양(模樣), 방학(放學), 의견(意見), 정신(精神), 學員(學員),형제(兄弟), 활동(活動), ……

동형완전이의어는 그 수가 많지 않으나 중국인 학습자들이 중국어의 의미로 이해하기 쉬우므로 그로 인한 오류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교재에서 별도의 해석을 주거나 교사들의 세밀한 지도가 있어야 하는 부류이다.

동형부분이의어는 한국어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한자어이므로 비교적 쉽게 습득할 수 있는 부류이다. 다만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공통의 의미 외에도 각자 달리 쓰이는 의미가 있으므로 학습자들이 사용할 때 다른 의미를 유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5. 맺는 말

이상에서 중국에서 쓰이는 10종의 초급 한국어 교재에 출현된 한자어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어휘 체계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크고 학습자가 한자에 익숙한 중국인이므로 한자어 교육에서 유리한 요소를 충분히 활용하여 쉽고 빨리 습득하도록 하는 것이 교재 편찬자들과 교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고 관련 연구도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시적인 연구가 많고 분야별 연구는 많이 부족한 느낌이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한자어가 현대 중국어와 차이가 없이 형태와 의미가 같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흔히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 “대가(大家)는 모두 동의했어요”, “저는 이 일을 그에게 고소(告訴)했어요”, “아버지는 서방(書房)에서 책을 봅니다.” 이러한 오류는 학습자들이 한자어의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범하게 되는 것이다. 우선 교재가 학습자들에게 한자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와 지식을 준다면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휘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지름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될 것이다.

짧은 시간에 방대한 양의 어휘를 계량적으로 통계하고 분석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논문에서 엄밀히 논증하지 못한 점, 설득력 있는 분석이 결핍한 점 등이 모두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다.



##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 국제한국어교육학회(2006), 『한국어교육론2』, 한국문화사.
- 김광해(1994), 「한자합성어」, 『국어학』 24.
- 남기심·고영근(1996),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국어학회.
- 성광수(2004), 「漢語와 韓語의 漢字語彙對比-兩言語間의 效率的인 語彙敎育을 위한」, 『새국어교육』 제67호.
- 신기상(2005), 『현대국어한자어』, 북스힐.
- 심혜령(2007),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를 위한 한자어 명사의 계량언어학적 연구-대상 한자어 선정 및 공기 관계의 계량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36.
- 이영희(2007c),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한자 빈도 연구」, 『어문연구』 제35권 제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이영희(2008),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교육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주행(2004), 『한국어 문법의 이해』(개정증보판), 월인.
- 임지룡 등(2009), 『학교 문법과 문법 교육』, 박이정.
- 조남호(200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조사』, 국립국어원.
- 조남호(2003),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 국립국어원.
- 한재영(2003a),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한자교육을 위한 기초적 연구-한자문화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23, 이중언어학회.

## 【中文摘要】

本论文以中国学生为对象编写的10套初级韩国语教材(在国内编写出版的教材14本,在韩国编写出版的教材6本)中的汉字词为研究对象。通过计量学方法,统计出教材中出现的汉字词,分析了汉字词所占比例、汉字词的构成、汉字词的词性等。并试图从汉字词的来源、汉字词与汉语词汇的形态、意义的关系,分析中国学生习得汉字词的难易度,为今后初级韩国语教学及教材编写提供基础资料。